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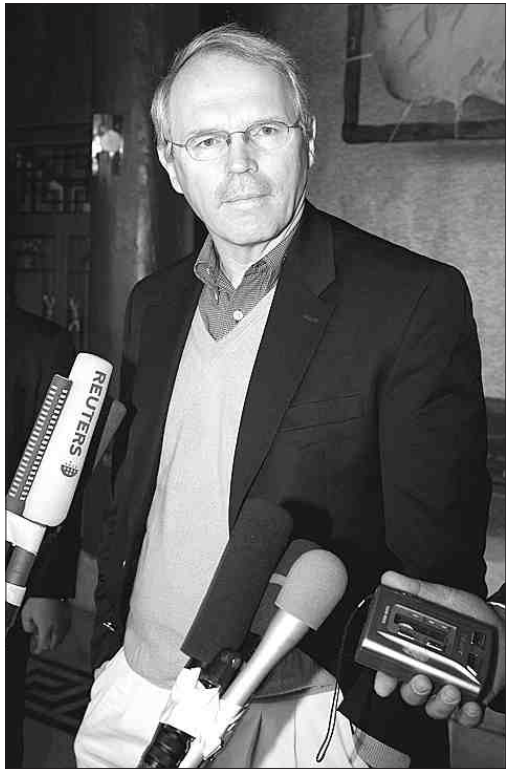
[국제]

■北, IAEA 대표단 전격 초청 의미와 전망

“BDA 돈 받으면 약속 지킨다” 국제사회 과시

북핵 6자회담의 진전을 가로막아온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북핵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실무대표단을 공식 초청함에 따라 이번 주부터 영변 핵시설 가동중단과 폐쇄 등 2·13합의 이행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북한 원자력총국 리제선 총국장은 16일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에게 편지를 보내 “BDA에 동결된 우리 자금 해제 과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것이 확인됐으므로 IAEA 실무대표단을 초청한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북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16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은 전망했다.

정부 소식통은 17일 “BDA 문제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될 때까지 IAEA 실무대표단과 북핵과의 협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특히 북한측의 2·13합의 이행의지가 이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북한이 마음 먹으면 2·13합의에 규정된 초기조치는 1주일 가량이면 충분히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북한측이 2·13합의 이행을 신속하게 추진할 의지를 확실하게 할 경우 IAEA 공식 검증

힐 차관보 “차기 6자회담 7월초 가능”

단기 임박하는 시점에 북한에 제공할 중유 5만 선적계약을 체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차기 6자회담은 북한측이 취한 초기조치를 평가하기 위해 6월 마지막주나 7월 첫주에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차기 6자회담 개최에 앞서 북·미 양자 회담도 개최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18일 몽골방문 일정을 마치고 중국을 방문,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과 만나 차기 6자회담 일정 등을 협의한 뒤 이날 오후 방한한다.

힐 차관보는 16일 기자들에게 “차기 6자회담 일정은 의견교환이 중국에 달려있지만 다음달 초에는 재개회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영변 핵시설 폐쇄·봉인 등 본격 논의

리 총국장은 “2·13합의에 따르는 영변 핵시설 가동중지에 대한 IAEA의 검증감시 절차문제 토의와 관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들은 “북한측이 IAEA 실무대표단과 핵시설 동결에 따른 대상과 범위, 사찰 방법 등을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분석했다.

IAEA 대표단이 이번 주중 평양을 방문하면 영변 핵시설을 폐쇄·봉인하기 위한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IAEA는 이어 북핵과의 협의결과를 특별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 승인을 얻으면 곧바로 IAEA 감시검증단을 영변으로 파견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아프가니스탄 경찰관들과 보안요원들이 17일 카불 시내 폭탄 폭발 지점에서 배대한 남은 경찰버스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한 자폭 테러범이 이날 카불 도심에서 자폭해 35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로이터-연합뉴스

아프간 자폭 테러...35명 사망

美, FTA 추가협상 공식 제의

노동·환경 등 7개분야...정부, 대응책 마련 나서

미국 측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노동과 환경분야의 의무를 위반하면 다른 분야처럼 일반 분쟁해결절차를 적용하는 등 노동과 환경, 의약품 등 7개 분야에 대해 추가협상을 제의했다.

정부는 16일 미국 무역대표부가 주미 한국대사관을 통해 자국의 신통상정책 관련 내용을 반영한 협정문안을 우리 측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미국 측은 노동 분야에서 1998년 국제노동기구(ILO) 선언에 언급된 대로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의 효과적 인정,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의 제거, 아동노동의 효과적 철폐 및 가혹한 형태

전문가의 관련 내용을 수정,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형식으로 돼 있다고 정부는 전했다.

미국 측은 웬디 커틀러 한미 FTA 수석대표를 파견, 서울에서 21일부터 22일까지 협의를 가질 것을 희망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추가협상의 제안을 검토한 뒤 부처 간 논의를 거쳐 대응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미국은 노동 분야에서 1998년 국제노동기구(ILO) 선언에 언급된 대로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의 효과적 인정,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의 제거, 아동노동의 효과적 철폐 및 가혹한 형태

의 아동노동 금지, 고용과 작업에 있어 차별 제거를 국내 법령이나 관행으로 채택·유지하자고 제의했다.

또 이런 의무의 위반이 되기 위해서는 양국 간 무역·투자에 대한 영향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기본 노동권을 이행하는 법령의 적용에서 양국 간 무역·투자에 영향을 주는 방법으로 면제하거나 이달할 수 없도록 하자고 요구했다.

노동 분야의 모든 의무를 위반할 때 다른 분야와 동일하게 일반 분쟁 해결 절차를 적용하자고 제의, 각종 노동법의 효과적 집행에 실패했을 때만 분쟁해결 절차에 회부하도록 한 기존 협정문을 수정했다. /연합뉴스

美 ‘위안부 결의안’ 통과 가시화

26일 외교위 본회의 상정

일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촉구하는 내용의 미 하원 위안부 결의안(HR-121) 통과가 눈앞에 다가왔다.

위안부 결의안 통과에 결정적 열쇠를 쥐고 있는 인물 중 하나인 하원 외교위원회의 램보스 위원장은 16일 로스앤젤레스 힐튼호텔에서 열린 기금모금 후원회에 참석, “위안부

결의안을 26일 외교위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라며 “여성 인권 문제인 위안부 결의안을 나 역시 지지하고 있는 만큼 큰 표차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램보스 위원장은 “위안부 문제는 지금껏 해결되지 않고 있는 여러 인권 이슈를 가운뎃 하나라고 생각하며 그동안 인권 문제를 다뤄온 사람으로써 중요하게 여기고 추진해 왔다”면서 “그럼에도 한국 여성이 받은 고통

베트남서 AI 사망 소멸 18개월만에 재발생

베트남에서 지난 2005년 11월 이후 18개월만에 AI(조류인플루엔자)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17일 국영 베트남 통신이 보도했다.

이 통신은 “정 위안 후안 보건부 차관이 최근의 한 AI회의에서 2005년 11월 이후 첫 AI 희생자의 발생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03년 이후 베트남에서 AI로 사망한 희생자는 43명으로 늘어났으며 현재 4명이상이 H5N1바이러스의 감염이 확인돼 하노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있다.

후안 차관은 “하노이와 인접해 있는 하떠이 성에 사는 한 20대 청년이 이 신문의 타이론 T. 버틀러 위싱턴 행정법원장이 최근 3명으로 구성된 책임심사위원회에 피어슨 판사의 책임용 거부를 권고

‘바지 소송’ 美 판사 책임용 탈락될 듯

위싱턴법원장, 거부 권고

바지를 분실했다며 한인세탁소 주인을 상대로 5천400만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소송을 제기한 위싱턴 D.C 행정법원 로이 피어슨 판사가 책임용 심사에서 탈락할 것으로 유력시된다고 위싱턴 지역신문인 이그제미너가 16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타이론 T. 버틀러 위싱턴 행정법원장이 최근 3명으로 구성된 책임심사위원회에 피어슨 판사의 책임용 거부를 권고

하는 서한을 보냈으며 이같이 전했다.

버틀러 법원장은 서한에서 피어슨 판사의 상식이하 소송이 전 세계 언론에 보도돼 법원의 이미지가 추락시키자 피어슨 판사의 책임용을 추천했던 기존 입장을 바꿔 피어슨 판사가 법원에서 일할 자격이 없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는 것.

시 고위관계자는 “내 상식으로 는 심사위원회가 그를 책임용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



우주 캡슐 경매

지난 1985년~1992년 사이에 소련 우주비행용으로 사용된 ‘포톤(Photon)’ 우주 캡슐이 16일 파리의 드루오 경매소 앞에 놓여있다. 이 캡슐은 7만2천 유로(약 8천900만원)에 팔렸다. /로이터=연합뉴스

美, 日 위안부 왜곡 광고에 격분

미국 행정부와 의회 일각에서 일본의 지도급 인사 63명이 지난 14일 워싱턴 포스트에 “위안부 동원에 감압이 없었고 위안부들은 대우를 잘 받았다”는 내용의 전편광고를 게재한 것과 관련, “후안무치한 행동”이라며

강력한 이의를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16일(현지시간) 알려졌다.

특히 텍사스 주 부통령은 포스트지 광고를 보고 “매우 화가 나는 내용”이라며 관계자들에게 경위 파악을 지시했고, 부통령실 관계자가 한국의

시민단체측에 체니 부통령의 불쾌감을 전달했다고 워싱턴의 한 시민단체 핵심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체니 부통령을 비롯한 미국 우익 인사들이 일본 의원들이 상당수 포함된 지도급 인사들의 후안무치한 광고 내용에 격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워싱턴=연합뉴스

마술 (Magic) 무료 수강생 모집

마술이란 감동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예술입니다. 마술을 통하여 어린이에게는 꿈과 아이유 향상을, 성인에게는 개인의 정서적 안정 및 취미생활로 활용하며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은 웃음을 잃은 사람에게 용기와 꿈과 희망을 주는 데 목적이 있으며, 본 무료교육 프로그램은 마술에 관심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사회봉사처원에서 실시하는 무료강좌 프로그램입니다.

※모/집/대/상※

- 유치원, 초·중등교사로서 수업에 활용하실분
- 봉사활동 및 취미로 배우시려는 주부 및 어르신
- 마술에 관심있는 초·중·고등생 및 일반인
- 소극적인 성격 개선 및 각종 발표회에 응용
- 비즈니스를 위한 영업전략에 활용하실분
- 초·중등생 게임중독치료 및 발표력 향상
- 초·중등 특기적성 마술교사로 활동하실 분(취업추천)

무료 초·중등 어린이 마술특강 개설

마술은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과 아이유 향상 및 요즘 화두로 떠오르는 BQ(감성)지수도 높여준다. 특히 성격 개선 및 각종 발표회에 활용할 수 있다.

★교육기간 : 주1회 8주 2개월
★교육비 : 무료(미술도구비 별도, 개인소장)
★교육장소 : 롯데백화점점 제일B/D 3층
★접수방법 : 선착순 20명 전화 예약 접수(개인교수)

○신기한 1일 마술교실체험 유치원, 초·중등학생, 대안도장, 각·예능학원
○각종행사, 마술 출장공연, 어린이 관련행사, 동문회, 교회행사, 아우회
○어떤 행사라도 마술사가 신비하고 재미있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매직&매직 아카데미 ☎(062)526-2500

도로교통사고감정사
- 제1회 시험 10월 14일 확정 -
도로관리 국영기업체 및 정부 산하기관 취업 가능...

도로교통사고감정사란 도로상에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하여 정 부기관이나 사고당사자 또는 제3자의 의뢰를 받아 교통사고에 대하여 조사하고 원인을 규명하는 교통사고조사 전문가를 말한다. WTO가 입국 중 교통사고와 사망률이 각각 1.29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정부는 당사자간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선진교통사고조사 문화화 선도하기 위하여 경찰청 주

설감정사 등으로 업무영역이 매우 넓어, 매년 수 천명 이상의 수요가 예상되며 전문가는 2~5년 이내에 최소한 8,000명~40,000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규 고용증대에 대해 업계와 당국의 관심은 매우 크다. (참고: 사고발생 약21만건, 사상자 약34만명, 의의 신청분쟁 매년 수천건씩 증가, 이상 2005년 경찰청 발표)

시험과목으로는 교통관련법규 등 4과목 객관식과 실무이며, 전 과목 평균 60점이면 합격이고, 응시자격은 만18세 이상으로 학력·경력과 무관하다. 특히, 일반시험에 마땅한 수험교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응시자를 위한 교육원의 안내자료와 특별교육까지 준비돼 있어서, 국가공인 제1회라는 시험특성까지 감안하면 시험 첫해인 올해 유례 없이 많은 국가공인 「도로교통사고감정사」가 탄생될 전망이다.

상담문의 / (062)528-7788

- 자격인증기관: 경찰청
- 시험주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 자료제공: 교통사고감정교육원

사립교사 공채안내

영양교사 교수진 특별초빙강좌
2008년도 사립공채 모집안내
사립학교 수급계획에 따른 공채

지금(올해) 바로 최적기입니다
“전 과목”
2009년부터 모집오강 변경예정

선택하십시오
결정하십시오

직원채용 (정규직)

- ◎2년제이상 졸업자
- ◎남,녀(30세미만)
- ◎이력서지참요

주관: 전국교육신문사
교육정보연수원

광주지원 TEL. (062)511-6359
H. P. 017-631-4467
서울지원 TEL. (02)3664-5263